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10

2025년 6월호

TALK²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6

틀 밖에서 길을 찾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뷰 [TALK² + Interview] 9

기획 창신인 모두가 '에이스메이커'

One in a Million 16

비트 위에 꿈을 심는 개발자

CEO 두줄 노트 20

차세대 시스템 도입, 지금부터 준비하자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 가져올 변화 22

계획 / 기준 정보 / 관리

Special Page 26

10억 쪽 생산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9

Innovation그룹

CSG News Pick (#창_뉴_픽) 34

#NIKE #Offshore #안전 #Craftsmanship

Trend Catcher 40

News Clipping 76호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신발 산업의 미래를 고민할 때, 다른 산업에서 더 큰 영감을 얻는다.
같은 업계 안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전 방문했던 일본 전기용품 제조업체 미라이 공업은
선명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사훈 '생각하라'를 내건 창업자
야마다 아키오의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60년 이상, 대기업보다 강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았다.

이 회사의 개선 제안 제도는 직원들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독려한다. 그 아이디어들은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그중 90% 이상이 특허 상품이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할까?'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매년
1만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질문의 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에서 생명을 얻는다.
틀 밖에서, 낯선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진정한 통찰은 시작된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물음 하나가 수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피어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난다.

익숙한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상상력,
그곳에서 비로소 혁신은 시작된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획 창신인 모두가 '에이스메이커'

창신, 10억 족 생산 달성

WE MADE IT



지난 4월 말, 창신은 10억 족 생산이라는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뤄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모든 창신인의 땀과 열정,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무엇보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여정의 결실**이다. 이번 6월 호 '특부'에서는 HQ에서 진행된 '10억 족 생산 기념식'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창신 매치데이'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축하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 담긴 창신인들의 송고한 노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써 내려갈 새로운 기록의 시작이기도 하다. WE MADE IT.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내일을 열어갈 것”

익숙한 방식 너머의 새로운 길 선택



지난 5월 21일 창신의 10억 족 생산 달성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본사 Hall-One에서 열렸다. 입구부터 '1B(One Billion pairs of shoes)' 로고가 새겨진 풍선들이 설치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포토존에서는 임직원들이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환하게 웃었고, 한편에서는 준비된 다과를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신 누적 생산량 Top 3 모델



WE MADE IT WE MADE IT WE MADE IT



행사의 시작은 나이키 코리아 GM/PM, 마이클 베일리스 (Michael Bayless)의 영상 메시지였다. 그는 창신의 10억 족 생산 달성에 깊은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창신이 오랜 시간 지켜온 'Mutual Trust & Respect'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진 10억 족 생산 기념 영상은 회사 연혁과 신발 개발 모델 등이 어우러져 창신이 그동안 걸어온 40여 년의 시간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냈다. 영상 속 직원들의 익숙한 얼굴이 비칠 때마다 현장에서는 반가움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가 터져 나왔다.

정환일 회장님은 무대에 올라 “눈앞의 성과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익숙한 방식 너머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 왔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라고 전하며, 창신만의 도전 정신과 혁신 스피릿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단 하나의 브랜드, 나이키 신발만으로 10억 족 생산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고객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나이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에서 남 총일 CEO는 '1B' 로고 모양의 감사패를 마이클 GM에게 직접 전달했고, 두 사람은 악수와 포옹으로 다시 한번 깊은 신뢰와 파트너십의 의미를 나눴다. 이 때 갑자기 마이클 GM이 "우리도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커다란 메시지 보드를 들고 무대에 올라 행사장을 놀라게 했다.



이 보드에는 나이키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이 지난 1월 15일 VJ를 방문해 회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부터, 1987년 개발한 창신 최초의 나이키 신발이자, 신발 제조 업체로서 창신의 시작을 알린 'Outbreak', 그리고 올해 8월 출시 예정인 'Vomero Plus' 이미지까지 담겨 있었다. 특히 나이키 코리아 PMO(Partner Management Officer) 전원이 손글씨로 직접 적은 축하 메시지가 보드를 빼곡히 채워 감동을 더했다.



나이키 Vice President, Footwear Supply Chain, 루이스 나바(Luis Nava)는 "10억 족 생산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Vice President, Global Footwear Manufacturing, 라비 구루스와미(Ravi Guruswamy)는 "CHANGSHIN이라는 이름 안에 Consumers, Humans, Athletes, Novelty, Greatness, Sacred Home of Innovation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며 창신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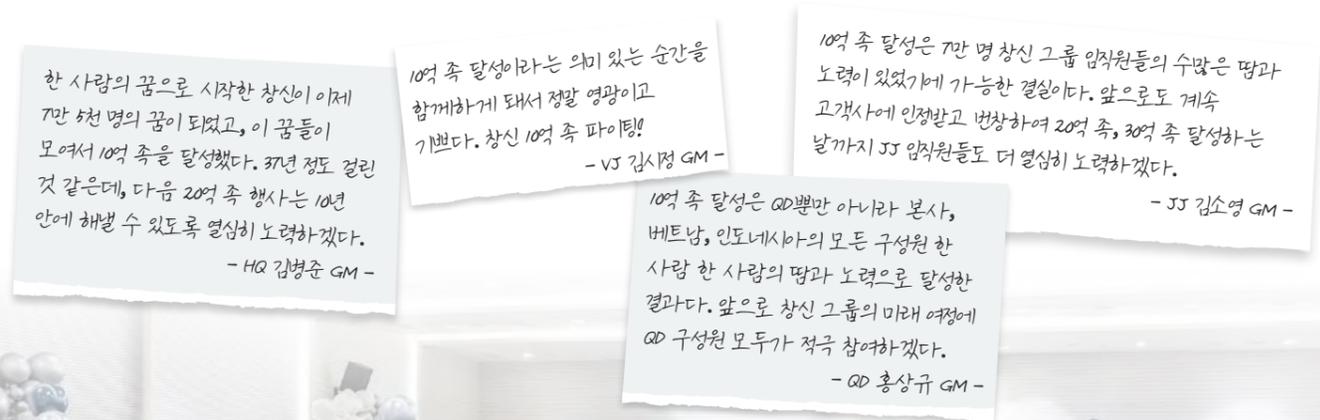
Consumers
Humans
Athletes
Novelty
Greatness

Sacred
Home of
Innovation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한 나이키 EVP, Chief Innovation, Design & Product Officer, 필 매카트니(Phil McCartney)는 "10억이라는 성과는 운동선수, 스포츠,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창신의 '집념'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창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특히 운동선수를 위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들이 소중한 기억"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끝은 창신의 오늘이 있도록 헌신한 권순제 고문을 비롯한 퇴직자 13명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정환일 회장님은 퇴직자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10억 족 생산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초청된 크로스오버 중창단 '델라벨라 싱어즈'의 축하 공연은 현장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경쾌한 선곡과 파워풀한 가창력에 임직원들은 박수와 어깨 들썩임으로 화답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10억 족, 순간을 함께해

창신인과 부산 시민이 함께한 '특별한 하루'

5월 21일 저녁, 창신은 사직야구장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순간을 마련했다. 임직원을 비롯해 초청된 부산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함께한 '창신 매치데이' 행사는 10억 족 생산 달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나눔의 가치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자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이었다.

이날 시구는 남충일 CEO가 맡아, 현장에서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시타를 맡은 나이키 코리아 GM, 마이클 베일리스(Michael Bayless)는 "창신의 10억 족 생산을 기념하여 그라운드에 선 경험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큰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나이키는 운동선수를 위한 신발을 만든다. 직접 그라운드에 올라 선수들의 시야와 움직임을 경험한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전에는 롯데지언츠와 함께 부산 지역 스포츠 유망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도 진행됐다. 양사는 '1도루=1컬레' 기부 캠페인을 통해 2025 시즌 동안 롯데가 기록하는 도루 수에 맞춰 창신이 개발 및 생산한 러닝화를 청소년 유망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야구장을 가득 채운 열띤 응원,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관람까지. 이날 행사는 창신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하루였다.

“ Nike, we provide shoes for athletes and being able to put your feet into their shoes is something that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To be there and just take it all in was the memory that I'll never forget.

Michael Bayless
GM, Partner Management Korea, Nike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릿 댄서"
-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제보하기

EP.03

비트 위에 꿈을 심는 개발자

**: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Training팀 이용수님

퇴근 후, Training팀 이용수 TD는 집에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 악기 위에 멜로디와 리듬을 얹고, 목소리를 더하면 흩어졌던 소리들이 하나의 곡으로 완성된다. 수많은 파트들이 모여 한 쪽의 신발을 완성하듯,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신발과 음악은 닮아 있다.

"내가 만든 신발이 누군가의 발걸음에 힘을 주듯,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일과 음악, 두 세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리듬을 이어가는 이용수 TD. 그가 전하는 비트 위에 새겨진 꿈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일상 속 스며든 음악, 삶의 리듬이 되다

“음악과 신발, 서로 다른 파트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

코인 노래방 '가시' 부르다, '반주' 시작

학창 시절, 코인 노래방(이하 '코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친구들과 거의 매일, 짧게는 몇 곡, 길게는 줄곧 노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창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뒤로하고 달려갔던 코노, 그곳에서 불렀던 버즈의 '가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가사 한 줄 한 줄에 마음을 실어 노래에 깊이 빠져들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부를 노래면, 반주도 내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이 찰나의 갈증이 결국 '음악 전체'를 향한 시야를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기숙사 방구석 열정,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듣다

대학 시절,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 손에 잡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직접 반주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기타 줄을 튕기며 몰입했다. 이 열정 덕분에 룸메이트도 내 편이 되어 주었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반복해서 연습했다. 손가락 통증에 익숙해질 무렵, 작은 손끝의 떨림과 함께 '내가 만든 멜로디'가 기숙사 방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비로소 반주가 가능해졌음을 직감했다.

그 후에는 일렉트릭 기타와 피아노로 영역을 넓히며 작곡과 편곡에도 발을 들였다.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하고, 새로운 주법을 익히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실력을 쌓아갔다. 피곤함조차 잊을 정도로 나를 몰입시킨 것은 바로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듣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이 된 지금의 나는, 더 넓은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듣는다.



창신인들에게 추천하는 Playlist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

올해 생산 10억 곡을 달성한 창신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이다. 이 곡처럼, 창신과 창신인 모두 '꽃길만 걸길' 바란다.



Drive (feat.조지)
김현철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시티팝 장르의 곡으로, 제목처럼 드라이브 할 때 들어보기를 권한다.



살다보면
권진원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의 반주와 인생을 곱씹는듯한 가사가 매력적이다. 최근 연주 연습을 한 곡이기도 하다.

틈 사이로 스며든 음악

작은 홈 스튜디오는 음악과 침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녹음-듣기-수정의 반복, 작곡-편곡은 물론, 가벼운 믹싱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완성보다 중요한 건 '몰입의 순간'이다. 음악이 내 일상 속에 스며든, 작지만 강렬한 '틈'이 되었다.

음악, 협업을 넘어선 '진짜 교감'을 선물하다

음악은 나에게 혼자만의 기록인 동시에 동료들과 교감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다. 노래를 즐겨 부르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동료부터, 그리고 자작 랩을 즐기는 선배까지. 다양한 직장 동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JJ 임지수 TD와의 협업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지수 님의 자작 랩에 어울리는 반주 트랙을 만들기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존 비트 위에 우리만의 색을 입히며 조금씩 곡을 완성해 갔다. 최종 녹음을 마쳤을 때의 뿌듯함은 단순한 작업의 결과가 아니었다. 업무로 시작된 인연이 음악을 통해 진정한 교감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같은 리듬 위에 있었다. 음악은 나를 표현하는 언어이자, 누군가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였다. 음악은 직장 동료를 넘어선 유대감을 선물했고, 이때의 경험은 내 일상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지수 님과 함께 만든 자작곡 대공개!

바로 듣기

생애 첫 공연 '수박 축제'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다

사내 밴드와 외부 직장인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대에 섰지만, 경남 함안 수박 축제에서의 첫 무대는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다. '수박 축제와 밴드'라는 낯선 조합만큼이나, 무대는 좁았고 관객도 들성들성 앉아 있는 어르신 몇 분이 전부였다. 기대도 응원도 없이 시작된 연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설피고 긴장감으로 손에 땀이 차고 머릿속은 새하얗졌다.

그런데도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주변이 고요해지고 손끝에서 만들어진 리듬이 무대를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불완전했던 그 순간, 오히려 더 강렬한 전율이 밀려왔고, 내 손끝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나를 숨 쉬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깨달았다. **음악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살아있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찐친과 성장하며, 행복할 것

내게 신발과 음악은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찐친'이다. 두 대상의 공통점을 꼽자면, 서로 다른 파트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이다. 정교한 부품이 모여 최적의 착용감을 만들어내듯, 음악도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곡이 된다. 신발과 음악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은 소중한 친구다.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 지금부터 준비하자

차세대 시스템 도입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신발 제조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어떤 인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무 역할 재정의, 조직 개편, 본사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최적화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시스템 전환 **이후 달라질 공장의 운영 방식, 본사의 역할 변화, 그리고 전사 차원의 인력 운영 방향**까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상상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본사와 해외 공장을 포함한 전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역량과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다가올 변화를 따라잡고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특집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 가져올 변화



계획의 일원화

기준 정보 기반 운영 체계

생산 운영의 정밀화

2026년 1월, SAP S/4HANA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단순한 시스템 교체를 넘어,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1) 계획의 일원화, 2) 기준 정보 기반 운영 체계, 3) 생산 운영의 정밀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회사 전반에 걸쳐 **실행력과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가져올 주요 변화를 미리 살펴본다.

계획(Planning)의 일원화와 연결성 강화

현재 회사의 계획(Planning) 업무는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계획은 영업(BU)에서, 사업계획은 경영관리에서, 투자 및 원가계획은 재무에서, 생산계획은 해외 공장의 JIT 및 공정별 SHOP 관리자가 **각기 다른 방식과 도구로 수행**한다. 구매 발주는 구매부서에서 공정별 요건들을 수집해서 진행하며, 공장도 별도의 원가·재무 관련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절된 방식은 **회사 전체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계획 수립에 한계**를 가져왔다.

→ S&OP 기반의 통합 계획 체계

S/4HANA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은 **S&OP(Sales & Operations Planning)** 체계를 중심으로 **계획의 일원화와 연계성을 강화**한다. 공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수익성까지 반영한 **영업기획 시스템**을 통해 영업(BU)은 시즌별 최대 이익을 목표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생산계획, 원가 및 투자계획이 **단일한 데이터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본사의 **GSCM(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기능은 **영업 계획을 바탕으로** 공장의 운영 모델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공정 전반의 생산 요건과 일정, 원자재 발주를 설계하고, **개별 공정과 협력사들의 생산 활동을 조율**한다.

즉, 부서별로 진행하던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스템 내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통합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의 정합성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준 정보 기반 운영 체계

그동안 공장 운영의 핵심 기반인 기준 정보는 실제 현장 운영 지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현재는 고객사 요구에 맞춘 PFC(Process Flow Chart), CBD(Cost Break-down) 등 개별 정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된다. PFC팀은 PFC를 생성하고, Yield 팀은 고객 요구 단위에 맞춰 원자재 소요량을 산출한다. P-BOM에서는 PFC와 Yield 데이터를 바탕으로 BOM 구조와 코드를 만든다. IE팀은 표준 작업시간(Standard Time)을 기준으로 공정 흐름(Routing)을 생성하며, 공장은 본사의 데이터를 참고해 공정 현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생성해 APS-SS에서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기준 정보는 여러 부서에 분절되어 있고, 현장 운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 공장 운영모델 중심의 기준 정보 설계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처음부터 **공장 공정별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설계**된다. 이를 통해 생산, 구매, 인력 등 모든 계획이 시스템 내에서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PFC는 별도의 해석 없이 곧바로 BOM과 Routing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관리된다. Yield와 CE팀은 공장 상황을 반영한 자재 소요량을 설계·관리하며, IE팀은 공정별 투입 가능 설비와 표준 작업시간을 기계와 인력으로 구분해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앞으로 기준 정보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생산·구매·인력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자 실행 기준**이 된다. 기준 정보가 정확할수록 계획과 실행의 오차는 줄고, 예측력과 실행력은 높아질 것이다.

생산운영 관리의 정밀화

기존 생산 방식은 '계획'보다 현장 '가용성'에 의존해 운영됐다. 생산 과정의 아웃풋(Output)은 패스카드(PASSCARD) 스캔으로 일부 관리되었지만, 아웃풋을 위해 투입된 자재, 설비, 인력 등의 인풋(Input)은 관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생산 로트(Lot) 단위의 생산 효율성 관리는 어려웠고, 품질관리 역시 완제품 단계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사후 방식에 머물렀다. 공무팀도 기계설비의 유지보수보다는 고장 수리에, 구매팀은 생산 일정과 재고 수준에 대응하기보다는 재고가 소진된 자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 생산계획 기반의 통합 생산관리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생산 계획을 중심으로 생산 로트 단위의 인풋과 아웃풋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계획과 실행의 일치도가 높아지고, 품질관리도 생산 로트 기준으로 이뤄져 문제 원인 추적과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공무팀은 생산 일정을 바탕으로 기계설비를 준비·관리하며, 툴링팀도 계획된 작업에 필요한 공정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한다. 구매업무는 생산계획에 기반한 선제적 수요 예측형 구매 방식으로 전환된다.



생산 전 과정이 '생산계획에 따른 실행' 중심으로 정렬되는 것이다. 생산이 계획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생산의 정확도는 물론 품질과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통합과 연결, 그리고 실행 중심의 전환

이제 우리는 과거 분절된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계획-실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의 실행력이 곧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창신, 누적 생산량 1BILLION

세상을 밝히는 10억 개의 별처럼
창신이 만든 10억 켤레의 신발은
우리 모두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움직임을 만들어 온 창신은
10억 켤레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CSG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10억 족 기념 게시글과 축하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changshin_official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어, 가능성을 현실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발 개발의 경계를 넓히는 팀, Innovation. 이들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선다. 신발의 구조부터 제조 방식까지 기존의 룰을 해체하고 재설계하는 미래형 개발팀, Innovation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무수한 실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진짜 혁신이 실현되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그 치열한 개발의 이면을 지금 만나보자.

미래를 이끄는 기술력 체계화된 데이터로부터

“어떤 샘플이든 진심을 다해서 개발”

Innovation = Creative?
No! Innovation = Creative + Data!

감피 feat. 나트



“혁신은 여기서 시작된다
Innovation!”

Innovation 정해진
원본그림



Innovation 이소민님 인터뷰

Innovation 그룹에서 10년이 넘게 개발자로 성장해 온 이소민 TD. 샘플 하나에도 진심을 쏟고 모든 개발 단계마다 디테일과 밀도를 놓치지 않는 그의 기준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다져졌다. 이제 팀의 든든한 중심축이 된 그에게 Innovation의 본질에 대해 물었다.

Q Innovation 그룹 소개 좀 해달라

Innovation은 신발 디자인 컨셉부터 생산까지 ‘무엇이 혁신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끊임없이 탐구하는 팀이다.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과 공정 방식을 찾아내고 실험한다. 예를 들면, 양말로 감피를 만들거나 미드솔과 미드솔 사이의 플레이트를 플라스틱 성질의 물질을 틀에 굳혀 제작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자수 기계를 통해 섬유를 여러 겹 쌓아 만들어 보는 등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발상과 다양한 실험을 반복해 이를 실제 제품 제작 과정에 적용되도록 돕는다. 또한 신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 녹여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Q 프로젝트마다 진심을 다하는 이유가 있나

Innovation 프로젝트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과정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열정을 유지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 그러던 중 ‘NXT Vaporfly’라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미드솔 구조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 미드솔 두께와 에어백 위치를 세심하게 조정해 수십 개의 샘플을 만들었고 착화 테스트를 거듭하며 구조를 다듬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제품화 과정을 거쳐 ‘Alphafly’로 정식 출시, ‘브레이킹 2(Breaking 2)’에서 상징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전율과 성취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우연히 워크샵에서 ‘에어 줌 타입(Air Zoom Type)’이라는 모델을 발견한 순간이다. 낯익은 미드솔 구조가 눈에 띄어 알아보니, 과거 우리가 만들었던 샘플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아 한 디자이너가 제품으로 발전시켜 출시까지 한 것. 그때 깨달았다. ‘샘플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결국 하나의 제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 어떤 것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Q 11년차 Innovation 개발자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Innovation = Creative’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더불어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데이터’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수많은 실험과 피드백이 쌓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체계화하는 일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는 구체화·현실화되고, 더 밀도 있는 개발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Running, Sportswear 등 각 디멘션으로 넘어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품질의 안정성, 재현성,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증된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디멘션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기술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것. 바로 그 역할 또한 Innovation 개발자의 중요한 역할이자 Innovation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다.

Q 앞으로의 계획

2012년 입사 이후 Innovation에서 TD로 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다. 출시까지 이어진 모델도 있었고 생산 직전 중단된 프로젝트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 순간 과정에서 배움을 찾고 개발자로서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는 자동화 장비와 신규 공정을 담당하는 팀의 관리자 위치에서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을 적극 나누고 싶다. 연말에 팀원들과 “올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람이 될 것이다.



CSG News Pick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톰 삭스(Tom Sachs)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마스야드 3.0(Mars Yard Shoe 3.0)' 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창신 본사를 찾았다. 나이키와 협업한 아티스트가 창신을 직접 방문한 첫 사례로, 이는 창신과의 협업이 단순한 개발·생산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마스야드'는 톰 삭스가 나이키와 공동 기획한 대표적인 신발 시리즈로, 2012년 첫 모델 출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버전이 창신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다. 3.0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자 본사를 찾은 그는, 창신과의 오랜 협업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하며 현장을 둘러봤다.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연결

이날 일정은 마스야드 시리즈의 개발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해, 이후 MX-1 Center의 Workshop과 SAHA동의 'Expression Lab'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톰 삭스는 Workshop에서 개발 중인 마스야드 3.0의 재봉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직원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1.0부터 3.0까지 마스야드 전 시리즈의 재봉을 전담해 온 조연정 님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정밀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깃든 손길을 눈앞에서 확인한 톰 삭스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후 6월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창신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운동화를 만드는 창신그룹에 가서 한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고퀄리티이고, 기술력이 대단해요"라고 말한 바 있다.

조연정 님은 "까다로운 작업이었던 만큼 완성의 기쁨이 컸고 마스야드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며 20여 년간 신발을 만들어온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전했다. 한편, 창신 임직원들은 톰 삭스의 공식 일정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에코백 및 티셔츠 등 다양한 소지품에 사인을 받으며 그와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Offshore

JJ, Product Creation Center 오픈

JJ는 지난 5월 28일, PCC(Product Creation Center) 오픈 행사를 개최하며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의 기술 및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PCC는 기존 MEC(Manufacturing Excellence Center)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전 과정을 한 곳에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고객사 및 생산 라인과의 접근성, 협업 연계성이 향상돼 개발 품질과 실행 속도 모두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

오픈식에는 창신 및 JJ 리더십, 나이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식수 행사, 그리고 PCC 사무실과 Workshop 투어까지 진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마이클 베일리스(Michael Bayless, GM, Partner Management Korea, Nike)는 “모델 개발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PCC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JJ는 'The Future Begins Here'라는 메시지 아래,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와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개발 센터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안전

지켜보는 것을 넘어, 함께 바꾸는 창신의 안전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 바꾸는 것’으로 창신의 안전 문화가 행동 중심의 실천으로 변하고 있다. RSM그룹은 지난 3월 ‘안전관찰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CEO를 비롯한 리더십과 CDC 엔지니어, 주요 현장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안전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듀폰(DuPont)의 STOP (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을 참고해 창신의 작업 현장에 맞게 재설계된 것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단순히 지적하는 대신 작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HS팀 고은정 팀장은 “안전 관찰은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RSM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raftsmanship

Craftsmanship 5기, 창신의 미래 인재로 성장 중

‘Craftsmanship 양성훈련’ 5기 훈련생 8명이 지난 4월 정식 입사하며, 창신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뒤, 6개월간의 교육 및 수습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이번 5기부터는 기존 재봉 중심에서 준비·제조 직무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하며, 더 다양한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조 부문에서 라스팅 공정을 맡고 있는 이정우는 “평소 신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제조 업무에서 일하게 되어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Craftsmanship 양성 훈련’은 부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해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창신의 대표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0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43명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했으며 재봉 및 나염, 고주파 등 Workshop의 다양한 파트에서 근무 중이다.



Craftsmanship 5기 (왼쪽부터) 공민준, 김한울, 이홍준, 이정우, 유윤관, 심현태, 심지훈, 이현승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6]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May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레고와의 첫 콜라보 제품 'AIR MAX DN x LEGO' 공개

- 작년 파트너십 체결 이후 공개된 첫 번째 콜라보 제품으로 레고를 대표하는 노란색 컬러와 블록 모양의 갑피가 특징
- 8월 1일 정식 발매와 함께 레고만의 독특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의류 및 액세서리 라인이 출시될 예정



Nike Air Max Dn x LEGO® Collection

Sports Illustrated

NIKE, 아마존 판매 재개 발표... "디지털 채널 확대할 것"

- 2019년 판매 중단 이후 6년 만의 복귀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보가 주요 목적
- 아마존을 시작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블룸버그 통신 "이는 유통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CEO 엘리엇 힐 (Elliott Hill)의 전략 중 하나"

머니투데이

경쟁사 / 시장

PUMA, 새로운 스니커즈 라인 'H-Street' 공개... 6월 26일 출시

- 1990년대 러닝화 하람비(Harambee)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PUMA만의 러닝 헤리티지를 녹여낸 것이 특징
- 최근 급부상한 로우 프로파일(Low-Profile)* 트렌드를 겨냥, 낮은 굽과 날렵한 앞코의 디자인으로 슬림한 실루엣을 구현
- 예약 판매 오픈 1시간 만에 매진 기록하며 정식 판매 전부터 뜨거운 반응



H-street

*로우 프로파일: 발레, 무술 등 발의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스포츠화에서 유래한 스타일로, 발에 밀착되는 디자인이 특징

한국경제

화승, 인도네시아 자바 빠띠(Pati) 두 번째 신발 공장 신설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빠띠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해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추진
- 총 3조 8,000억 루피아(약 3,2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1만 2,000명 규모의 신규 인력 채용 예고
- 자바 주지사 아흐마드 루트피(Ahmad Luthfi) "이번 신규 공장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공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